르노삼성, SM6 업그레이드 프로모션

르노삼성자동차가 3월 동안 2020년형 SM6 구매 고객들에게 추가금액 없이 기본 적용 사양을 업그레이드해주는 'SM6 프리 업그레이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또한 2월까지 3355만 원에 판매하던 SM6 GDe 프리미에르 차량을 3월에는 2968만 원(개소세 인하 적용)에 구매할 수 있다. 여기에 10년 이상 경과한 르노삼성자동차 노후차 교체로 80만 원의 추가 할인까지 받으면 최대 467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타이어프로, 무료 교체 대행 서비스

금호타이어의 타이어 전문 특화유통점 타이어프로가 9일부터 4월 30일까지 교체대행서비스를 무료로 진행한다. 교체대행서비스는 고객이 원하는 곳으로 방문해 차량을 수령하고 작업 후 다시 갖다주는 프리미엄 서비스이다. 해당 기간 타이어프로 홈페이지, 온라인 쇼핑몰 및 전국 타이어프로에 방문(제주 제외), 전화예약을 통해 대상제품 4본 구매 시 이용할 수 있다. 원성열 기자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가격 편견을 깬 닛산 6세대 신형 알티마의 '갓성비'

수입세단은 비싸다? 알티마는 3000만원대!

3000만 원대 수입차, 동급 최고 수준 가성비, 장거리 주행의 안락함, 서킷 주행도 가능한 스포츠 드라이빙. 이런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세단이 있다. 닛산의 중형 세단 알티마(Altima)다. 1992년 데뷔해 글로벌 시장에서 610만 대가 팔린 스테디셀러다. 국내 시장에서도 2017년과 2018년 2년 연속 베스트셀링 톱 10에 올랐다. 이번에 시승한 모델은 2019년 7월 나온 닛산 6세대 알티마 2.5SL 테크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작의 명성을 이어갈 충분한 능력과 상품성을 갖췄다.

기아차 신형 K5 풀옵션보다 저렴
승차감은 물론 스포츠주행도 OK
안전사양 충실…연비 12.8km/L

6세대 신형 알티마 상세 제원

	2.5 Smart	2.5SL Tech	2.0 Turbo
전장(mm)	4,900		
전폭(mm)	1,855		
전고(mm)	1,445		
축거(mm)	2,825		
엔진형식	2.5리터 DOHC 16밸브 4기통		2.0리터 DOHC 16밸브 4기통
총배기량(cc)	2,488		1,970 - 1,997
최고출력(ps)	184(6000rpm)		252(5600rpm)
최대토크(kg.m)	24.9(3600rpm)		38.7(4400rpm)
사용연료	휘발유		
공인연비(km/L) 복합/도심/고속도로	12.9/11.1/16.0	12.8/11.1/15.8	12.2/10.8/14.6
변속기종류	무단변속(Xtronic CVT)		
구동방식	FF(전륜 구동)		
가격	2,990만 원	3,590만 원	4,190만 원

6세대 닛산 알티마의 외관(위)과 실내 인테리어. 6세대 알티마는 중형 패밀리 세단이 갖춰야 할 정숙성, 안락함, 연비는 물론 원할 때는 서킷 주행도 무리없이 소화할 수 있는 스포츠 드라이빙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 수입 중형 세단은 비싸다는 선입견을 깨는 가격도 강점이다. 원성열 기자

●발군의 정숙성과 안락한 승차감

6세대 알티마 2.5 스마트 모델의 가격은 2990만 원, 시승 모델인 2.5SL 테크는 3590만 원이다. 국산 중형 세단인 기아차 신형 K5 풀옵션 가격(3623만 원)보다 저렴하다. 수입 중형 세단은 동급 국산차에 비해 비싸다는 선입견을 가볍게 깨는 가격이다.

성능은 어떨까. 먼저 파워트레인은 신형 알티마 2.5 스마트와 2.5 테크 트림에 탑재된 엔진은 새로 재설계한 2.5 리터 4기통 직분사 엔진이다. 이전 세대까지는 포트분사(MPI) 방식이었는데 직분사 방식으로 바꾸면서 배출가스 저감은 물론 소음진동도 줄였다.

주행을 하다 신호 대기로 정차를 하면 시동을 켰는지 껐는지 혼동할 정도로 조용하다. 시속 80km 이하에서의 정숙성은 물론, 고속도로에서 100~110km로 주행할 때도 로드 노이즈, 윈드 노이즈가 거의 들리지 않는다. 노면충격도 상당히 잘 걸러낸다. 여기에 2.5 엔진 특유의 여유로운 출력(184마력)과 최대토크(24.9 kg·m) 덕분에 운전이 더 편하다.

저중력(Zero Gravity) 시트도 패밀리 세단의 가치를 높여주는 요소다. 골반부터 가슴까지 신체의 중심을 단단히 지지하도록 설계해 하중 집중을 분산시켜 장거리 주행의 피로도를 줄여준다. 한 시간만 운전을 해보면 편안한 시트와 그렇지 못한 시트의 차이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다.

●기대 이상의 스포츠 주행 능력

닛산 알티마의 빼놓을 수 없는 매력 중 하나는 스포츠 주행 능력이다. 단순히 편드라이빙 정도가 아니라 서킷 주행을 해도 놀랄 정도로 안정적인 고속 직진 주행 성능과 고속 코너링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원표 수치 이상의 가속 성능을 발휘하며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 스포츠 세단 뺨치는 코너링을 즐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중 브랜드 스포츠 세단이다.

무단변속기인 엑스트로닉 CVT 변속기가 있지만 수동 변속의 느낌을 즐길 수 있는 D-스텝 기능으로 원하면 언제든 스포츠 주행을 즐길 수 있다. 패밀리 세단이면서 아빠들의 스포츠카 로망까지 실현시켜 주는 두 얼굴의 세단이다. 2.5 가솔린 모델인데 연비도 훌륭하다. 2.5 스마트의 복합연비는 12.9km/L, 2.5 테크의 복합연비는 12.8km/L다. 연비운전을 한다면 실 연비 14~15km/L는 무난할 정도로 효율성이 좋다.

●강화된 안전성, 닛산 세이프티 360

패밀리 세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6세대 알티마는 안전 사양을 충실하게 보강했다. 전방 주행 차량은 물론, 그 앞 차량의 속도 및 거리를 감지하는 인텔리전트 전방 충돌 경고, 앞 차와 간격이 가까워지면 경고음이 울리고, 운전자가 반응하지 않으면 부분적으로 제동을 가하며 그래도 간격이 가까워지면 더욱 강력한 제동으로 충돌 위험을 낮추는 인텔리전트 비상 브레이크가 있다. 시승 모델인 2.5SL 테크에는 앞 범퍼의 레이더를 통해 앞차와의 거리와 상대 속도를 계산해 적정한 거리를 유지해주는 인텔리전트 차간거리 제어 시스템이 추가되어 있다. 마치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가·감속 능력을 갖춰 첨단 사양을 처음 써보는 운전자들도 이질감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희소식 무릎이 불편해서 고생하시는 분~

▶며칠 차고있어 보니 부드럽고 시원해서 좋구나
▶무릎이 편하면 만사가 즐겁고 행복하다!

名作 名品

착용해보니 그것참 신통하구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일상에서 흔히 겪는 일들 중 무릎이 불편하면 매사 의욕이 떨어지고 귀찮아진다.

사람은 일생동안 많은 시간을 서서 생활하므로 체중이 아래로 집중되어 무릎에 무리가 오게 되는데 특히 비만인 경우에, 다리를 많이 쓰거나, 나이가 들어 노화현상으로 무릎에 대사가 나빠지면 활동하기가 어려워진다.

건강한 다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이고 건강한 식단, 체중조절이 중요하며 걷기, 스트레칭, 수영 등 다리에 무리가 가지않는 운동을 꾸준히 해주는 것이 좋다.

무릎이 편안하면 콧노래가 절로 나온다

최근 불편한 무릎을 보호해줄 수 있는 생체(生體)에너지 무릎밴드 참 무르팍엔이 출시되어 무릎이 불편한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있는데 천연광물질에서 다량의 파장이 방사 및 방출되는 무르팍엔은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다.

무르팍엔에는 4가지 광물(겔라이트, 그라파이트, 철보석, 의료용 자석)이 침착되어 있으며 그중 그라파이트는 발열소재인 탄소분자를 고온에서 1000배 이상 팽창시킨 물질로 열전도성이 구리의 200배, 빛의 30배에 활동에너지는 300배나 되는 고가의 신소재이다.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무릎에 착용하여 생활해보시면 시원하고 가뿐해짐을 느낄 것이며 가볍고 컴팩트하기 때문에 겉옷 속에 차고 있으면 표시가 나지않고 활동성이 좋아 누구나 일상생활 중에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해 보면 정말 만족하실 것이고 이곳저곳 소문 많이 내주세요~

불편한 무릎을 위하여~
상담문의: 무르팍엔
1670-5467

휴대용 허리가 불편해 고생하시는 분~

▶허리건강 비밀은 '허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다
▶며칠 착용해보니 그것 참 좋구나!

착용해보시고 확인하세요!

名作 名品

몸이 차가워지면 몸과 마음 그리고 매사의 의욕이 사라지는데 몸이 차가워지면서 생기는 현상을 바로잡아 주는데 필요한 것이 찜질 요법이며 찜질요법은 옛 우리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요법 중의 하나이며 현대의학에서도 많은 연구와 임상실험을 통해 입증되는 추세이다.

현대인들이 일상에서 흔히 겪는 것들은 우리 몸에 냉기가 쌓이면서부터 발생하는 것이 많다. 우리 조상들은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으면 아궁이에 군불을 지피고 아랫목에서 한숨 푹 자고나면 온몸이 가뿐해지는 것을 알았는데 바로 그것이 원적외선 찜질 효과 때문이었던 것이다.

허리가 편하면 만사가 편하다!

최근 허리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허리따따 발열벨트가 출시되어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전기 없이 스스로 피부와의 열교환으로 발열되는 허리따따 발열벨트는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4가지 천연광물에서 나오는 파장이 다량 방사 및 방출되는 제품이다.

허리따따 발열벨트는 4가지 광물질(겔라이트, 그라파이트, 철보석, 의료자석 등) 중 그라파이트라는 신소재는 천연발열소재인 탄소분자를 고온에서 1000배이상 팽창시킨 물질이며 열전도성이 구리의 200배, 빛보다 30배, 활동에너지는 300배나 되며 허리부위를 전기없이 따뜻하게 유지시켜주는 물질이며 불편한 허리를 따뜻하게 보호하고 배에 힘이 들어가도록 받혀 줄 것이다.

또한 가볍기 때문에 겉옷속에 차고 있으면 표시가 나지않게 착용할 수 있어 누구나 일상생활 중에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불편한 허리를 보호해주는~
상담문의: 허리따따
1600-1047